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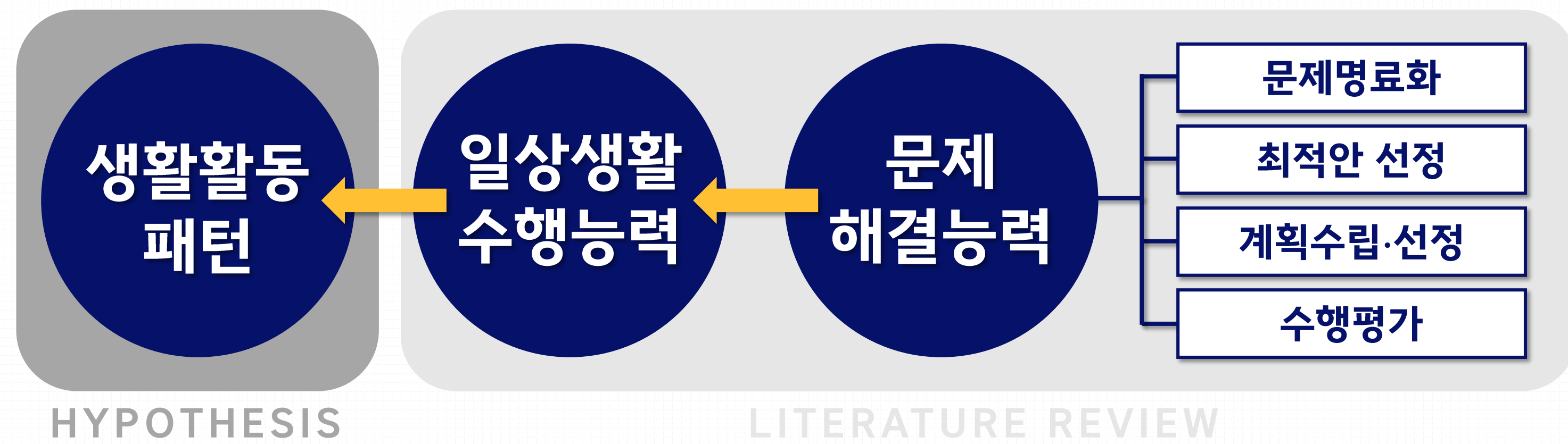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 속 실타래를 푸는 방법, 무엇부터 해야할까?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의 필요성 제기

- 심리학과 202022480 송혜리 | [서주영 교수님 지도 : 데이터분석기초 + 발달심리학 + 심리측정및실습]

연구목적 & 통합적 모형



HYPOTHESIS

LITERATURE REVIEW

강의페어링 연구내역

이론적 내용 분석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척도개발 내용
과정타당도 확립과정 → 예비검사의 개발 토대마련

추후 연구계획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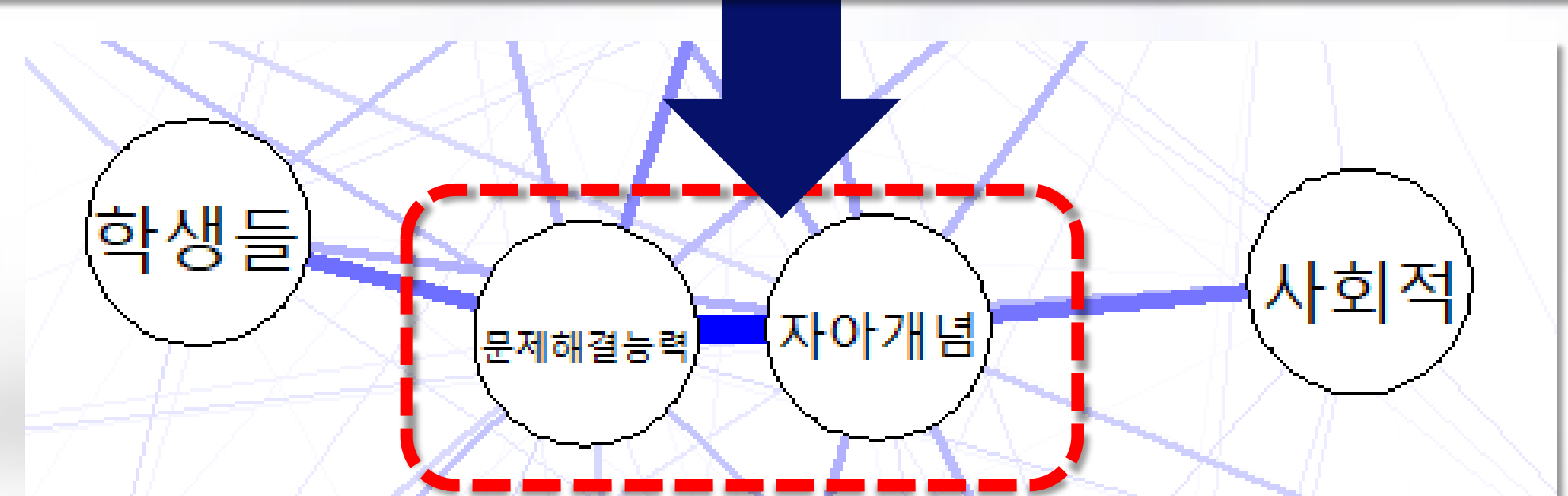
결과값에 근거한 신규 척도(예비검사)의 개발
예비검사 실시에 따른 문항 제거 및 수정 실시

이전 강의를 통해 정신건강의 영향변인에 있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과제를 토대로 실제 연구를 발전 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주목한 결과, **기존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들의 대상은 노인 및 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기존의 척도가 주목한 연령대가 아닌, **성인진입기 시기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해당 연령대는 여전히 자기이해를 키워드로 성숙의 단계를 시작하는 연령대이면서 능력개발에 있어서 유동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연령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척도들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요건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강의페어링의 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연구는 기초적 생활수준을 포함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측정을 통해 해당 연령대에 있어서 적절한 능력평가 및 준거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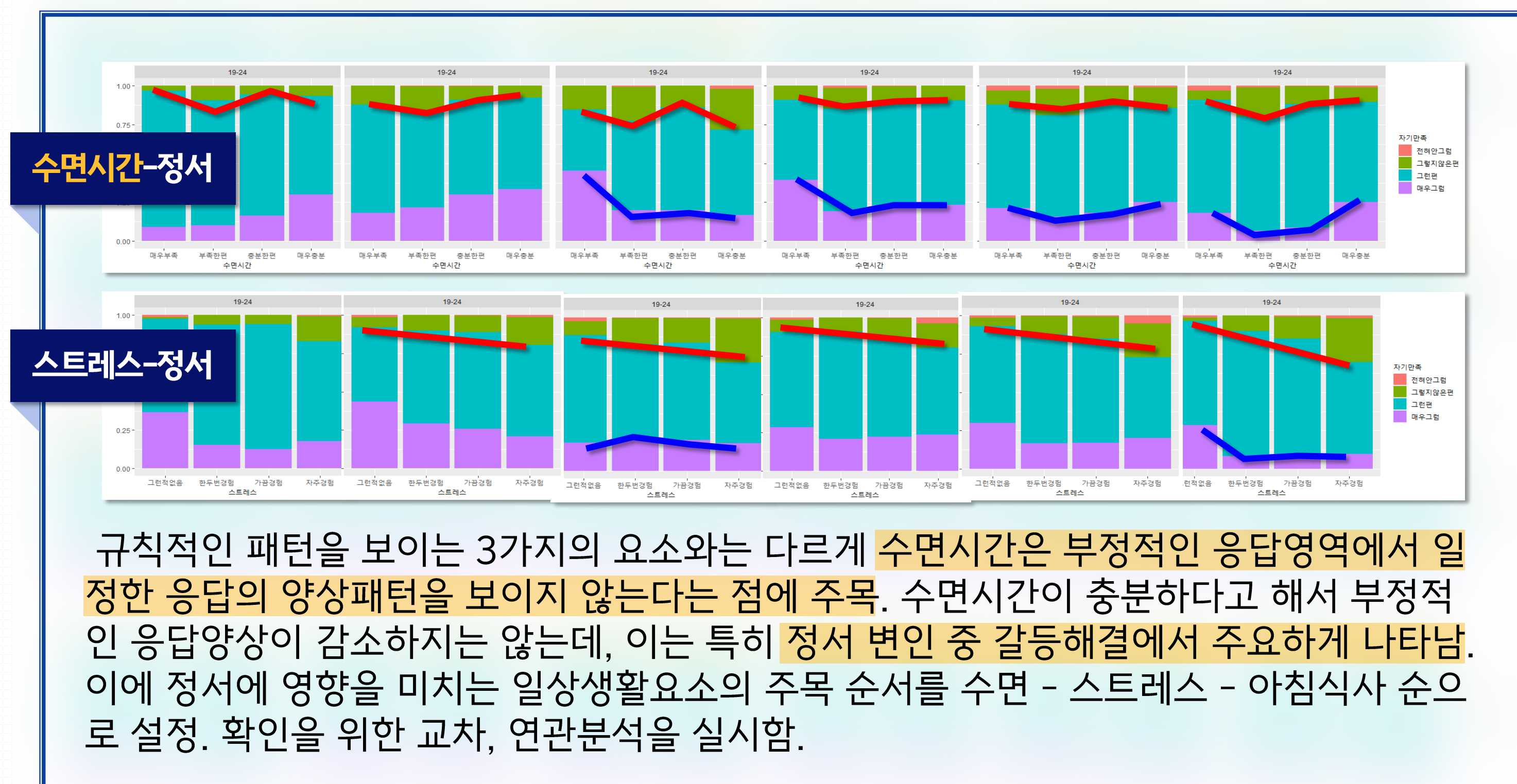
[일상생활수행능력 / 문제해결능력 / 생활활동 패턴에 기초한 논문 8종 분석결과]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확인 이후, 각 핵심적인 용어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가시화한 결과, 다른 키워드 간의 관계성보다는 **문제해결능력과 자아개념간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논문 상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공통으로 도출된 요소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아개념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 & 연구방향 제시

▶▶▶ 01. 패턴 분석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3가지의 요소와는 다르게 **수면시간은 부정적인 응답영역에서 일정한 응답의 양상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응답양상이 감소하지는 않는데, 이는 특히 정서 변인 중 갈등해결에서 주요하게 나타남. 이에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요소의 주목 순서를 수면 - 스트레스 - 아침식사 순으로 설정. 확인을 위한 교차, 연관분석을 실시함.

▶▶▶ 02. 교차분석

변인	도출 조건	기대치	도출값	응답인원
우호성	(매우 좋음) - 수면시간 (매우 충분)	0.149	0.299	32/107명
협력	(매우 잘함) - 수면시간 (매우 충분)	0.273	0.336	36/107명
갈등 해결	(매우 잘함) - 수면시간 (매우 부족)	0.201	0.455	15/33명
	(매우 못함) - 수면시간 (매우 충분)	0.003	0.019	2/107명
자기 가치	(매우 높음) - 수면시간 (매우 부족)	0.221	0.394	13/33명
	(매우 낮음) - 수면시간 (부족한 편)	0.006	0.014	11/765명
좋은 성품	(매우 나쁨) - 수면시간 (부족한 편)	0.008	0.018	14/765명
	(매우 만족) - 수면시간 (매우 충분)	0.090	0.252	27/107명
자기 만족	(매우 만족) - 수면시간 (매우 부족)		0.182	6/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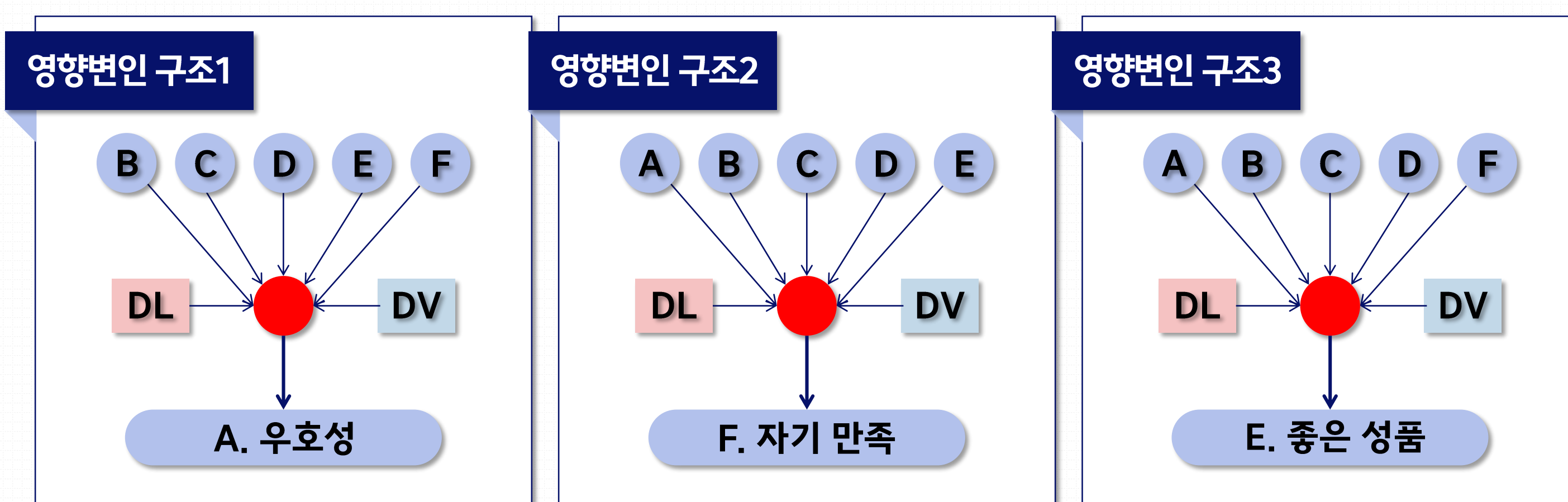
[도출값 차이량]
● 약 2배
● 약 3배
● 약 6배

▶▶▶ 03. 연관분석

일상생활변인	공 동 영 향 변 인	결과변인 (정서)
1차 분석조건 수면시간 (충분한 편)	협력, 갈등해결, 자기가치, 좋은성품, 자기만족 (적절한 편)	우호성 (적절한 편)
	우호성, 협력, 갈등해결, 자기가치, 좋은성품 (적절한 편)	자기만족 (적절한 편)
	우호성, 협력, 갈등해결, 자기가치, 자기만족 (적절한 편)	좋은 성품 (적절한 편)

◀ [1차, 2차 구분 조건]

- 1차 분석조건 (응답비중=0.1)
높은 응답비중을 통해 모든 응답조건에 해당하는 변인 모색
- 2차 분석조건 (응답비중=0.001)
응답비중 완화를 통한 정서변인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순서파악



◀ [영향변인 구조별 변인]

- A 우호성 D 자기가치
- B 협력 E 좋은성품
- C 갈등해결 F 자기만족
- DL Daily Life Variables 수면시간(충분한 편)
- DV Demographic Variables 연령대(19~24세), 성인진입기

▶▶▶ 04. 결과해석 및 가설수립

- 1차 분석조건 분석결과 (필수 변인)
적절한 단계의 정서변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일상생활 관련변인은 수면시간이 도출됨. 해당 변인에서는 리커트 척도 상에서의 '충분한 편'에 해당하는 단계에 도달해야만이 영향을 미침 → 수면시간은 일상생활변인 중 가장 핵심적인 주목변인*
- 2차 분석조건 분석결과 (변인간 순서확인)
지지도에 근거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스트레스로 나타남. 이후 지지도에 근거한 순서로는 수면시간과 아침식사가었으며, 문제해결능력에서 '사회적인' 양상을 추가한 근거에 해당하는 정서변인 중, 협력변인이 공통 결과변인으로 나타남.

0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관계는 유의미할 것이다..

02.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0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일상생활수행능력 척도는 유의미할 것이다.

● 추후연구계획

강의페어링을 통해 이론적 근거마련 과정 결과, 문제해결능력과 일상생활변인에 설명력을 가지는 정서적 자아개념과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기초한 일상생활수행능력 검사의 개발에 대한 내용 타당도 및 과정 타당도의 요건을 구성함.

이에 문제해결능력과 일상생활변인의 기존 척도를 활용하여 표본수집을 통해 2가지 변인에 대한 관련성을 기초하여 척도개발의 근거로 활용한 이후, 예비검사를 위한 문항개발을 실시 예정.

일상생활변인	공 동 영 향 변 인	결과변인 (정서)	지지도
스트레스 (가끔 경험)	우호성, 갈등해결, 자기가치, 자기만족(적절한 편), 좋은성품 (매우 좋음)	협력 (매우 잘함)	3.187
수면시간 (충분한 편) 아침식사 (가급적 먹음) 스트레스 (한두번 경험)	갈등해결, 좋은성품, 자기만족(적절한 편), 자기가치(매우 높음)		3.049
아침식사 (가급적 먹음) 스트레스 (가끔 경험)	우호성, 갈등해결, 자기가치(적절한 편), 좋은성품(매우 좋음)		3.032